



복수 속, 월정사 법륜전에서 열린 영화시사회는 즐거운 대중법회였다.

**월정사 '천년의 숲길 찾아가는 산사 영화제'**

**# 월정사에서 첫 선... '문화 사찰' 호응**  
 굵은 빗줄기가 하염없이도 영화에 몰입한 사람들에게 빗소리는 의미조차 없었다. 천년 고찰에서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영화를 보는 700여명의 관객들은 시간의 의미도 잊은 듯 했다.  
 6월 19일 오후 7시 30분,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법륜전에서 '달마야 서울 가자' 이후 '서울가자'로 줄여 씀의 시사회가 열렸다. 월정사가 기획한 '천년의 숲길 찾아가는 산사 영화제'의 첫 이벤트였다. 비 때문인지 다소 물기가 묻었던 시사회장의 분위기는 주연배우들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달라졌다. 사인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어린 불자들의 들뜬 함성이 법륜전의 분위기를 달구기 시작했다.  
 시사회에 앞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사찰의 문화적 기능은 무궁무진하다"며 "월정사에서 처음으로 시사회를 갖는 것도 사찰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육상호 감독과 정진영, 이원중, 이문식 씨 등 주연배우들도 "사찰에서의 시사회는 생각 이상으로 신선하다"며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며 만든 이 작품이 불자와 국민들에게 사랑받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윽고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법륜전은 폭소와 박수로 요동쳤다.

**# '놀자'에서 '서울 가자'로의 진화에 주목하라**  
 영화는 관객들에게 깊은 고민을 하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허황된 코미디조의 웃음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서울 가자'의 틀은 전편 '달마야 놀자'에서 많은 부분 그대로 가져 왔다. 그러나 비슷한 틀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전혀 다르다. 관객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놀자'에 비해 진화된 부분들이다.  
 우선, 산사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적 진화, 두 배로 커진 판이 눈에 띈다. 전편에서는 아예 통신두절이던 핸드폰의 사용도 흥미진진하다. 묵언하는 대웅 스님(이문식 분)에게 가장 확실한 의사소통 도구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이웃종교를 끌어들이는 점, 반야심경을 합함으로써 개조해 부른 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조폭들도 진화해 인간답게 살아 보려고 인간됨을 쓰는 캐릭터다.  
 이렇게 진화된 틀에서는 '상생'의 가르침이 묻어 난다.

**# 따뜻한 영화... '불교 공부 하고 싶어요'**  
 영화가 끝나고, 법륜전을 나가는 사람들은 한결 같이 흥겨운 표정이었다. 유치원 교사 이수진씨는 "아주 따뜻한 영화"라는 짧은 말로, 서울에서 왔다는 등산복 차림의 부부는 "이제 불교 공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소감을 대신했다. **월정사-임연태 기자**

**'달마야 서울 가자' 시사회 700명 운집**  
**정념 스님 "사찰, 문화적 기능 무궁무진"**



'달마야 서울가자' 시사회가 열린 월정사 법륜전. 스님과 불자들은 사찰이 문화의 전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고영배 기자**

**웃고 박수치고...여기 절 맞아?**



육지장사 대웅보전에서 펼쳐진 선무공연. 부처님도 관객으로 공연을 감상했다. **사진=박재환 기자**

**육지장사 '제1회 불교영화 축제'**

우두둑 떨어지는 비(雨)소리도 하나의 빗방울 전주곡으로 변해 산사에 울려 퍼졌다.  
 6월 19일 오후 4시 '제 1회 불교영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 육지장사(주지 지원,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녹음이 우거진 산사에는 아수한(?) 비가 하루종일 쏟아졌다. 이 때문인지 축제현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하지만 "악속은 한 명이 와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육지장사 주지 지원 스님의 '물(水) 특강'으로 우중(雨中) 축제는 문을 열었다. "불자님들 음식만 씹어 먹는 게 아니에요. 림도 꼭꼭 씹어 마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천물을 갑자기 한 입에 벌컥 마시면 속병이 나기 쉽지만, 물을 씹어 마시면 씹는 동안 물이 몸 안의 온도와 맞춰지게 돼 속이 편해집니다."  
 스님이 명상이나 참선 특강도 아니고 웬 물 특강? 의아해 할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다. 건강이 안 좋았던 스님이 새벽에 일어나자 마자 예불

**지원 스님의 '물(水) 특강'으로 문 열어**  
**음성·무용공양에 관객 모두 어깨춤**

전 물을 세 컵이상 씹어 마신 후 흠뻑 젖어 땀이 났다. 스님의 물 건강법은 계속된다. "7회 이상 씹어 먹는 것이 좋으며, 아침에 일어나 꾸준히 물을 마시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당에서 특강이 끝난 후 대웅보전으로 자리를 옮겨 산사음악회를 진행했다.  
 서울 인천 경기 연합합창단의 '큰 사랑'과 '찬미의 노래' 음성공양을 시작으로, 테너 김태영씨는 '내 사랑을 안고' '그리운 금강산'을 선사했다. 이어 김애라씨(서울 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중요 무형문화재 제 17호)도 해금으로 '신 아리랑'과 '유모레스크' 등을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비록 숲이 우거진 야외에서의 공연은 아니었지만 대웅보전의 불보살들까지 함께한 2백여 관객들은 어깨춤과 앵콜을 연발하며 즐거워 했다. 이날 음악회는 무용가 이선옥씨의 '선무용'과 부부듀엣 '해와 달'의 중창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오후 8시부터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세암' 영화상영. 영화 '오세암'은 다섯 살 동자가 암마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 특히 이 영화는 얼마전 애니메이션의 칸영화제에 불리는 프랑스 안시 에니페스티발에서 장편 경쟁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해서 인지 성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김정정씨 보살(47)은 "비가 많이 와 고즈넉한 산사의 분위기를 만끽하지 못해서 무척 아쉬웠다"며 "하지만 부처님을 모신 법당 안에서 부처님과 함께 불교 음악과 영화를 감상해서 인지 오히려 환희심이 더 나는 것 같아 좋았다"고 행사 참가 소감을 털어놨다.  
 한편 다음날인 20일 오후 8시에는 티베트 14대 달라이라마의 환생과 그가 중국의 탄압을 피해 인도로 향하는 여정을 그린 '룬둔'이 상영됐다. **육지장사=김주일 기자**

- 한국불교영화 역대 해외영화제 수상작품**
- ▲ '이제이제바라야제' 89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감독 임권택, 주연 강수연
  - ▲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89년 제 42회 스위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그랑프리 수상-감독 배용근, 주연 이판웅 신원섭
  - ▲ '회암경' 94년 베를린영화제 알프레트바우어상-감독 장선우, 주연 이해영 원미경
  - ▲ '동승' 2002년 상하이 국제영화제 시나리오상, 아태영화제 최우수 작품상-감독 주경중, 주연 김태진 전무승
  -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2003년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 4개부문 석권-감독 김기덕, 주연 김중호 서재경
  - ▲ '오세암' 2004년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심사위원상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여름 특별기획안내** (호화유람선으로 이는 중국여행 및 사찰순례)

삼보에 귀의 하얏고  
당서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제주 화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피운사, 외불사, 응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소림사, 백마사, 응문석굴) ₩ 49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운강석굴, 화엄사, 현통사) ₩ 590,000원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제주 금요일 출발
  - 천진, 북경, 내몽고 8일(호화호특) ₩ 520,000원
  - 천진, 북경, 패상초원 8일(포타리궁, 보녕사) ₩ 520,000원
- 호화유람선 위동페리로 제주 목요일 출발
  - 청도, 제남, 곡부 6일(천불산 만불동, 영암사, 잠산사) ₩ 390,000원

□ 요급포함내역(공통사항)  
 -포함사항: 왕복 선박료, 호텔(4장, 4장 2인1실), 입장료, 여행자 보험, 항만세, 선내 다인실 기준, 전일정 식사(선내 포함)  
 -불포함사항: 중국 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사비, 개인경비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 79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 79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 69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응문석굴 5일 ..... 69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 16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